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49호

### 스포츠윤리센터

#### 강제조사도 징계도 못하는 반쪽 조직 한계가 원인

박광철 장세풍 내일신문 기자

### 대학스포츠 (과도기 속 대학 선수 선발 방식)

#### 영날의 검, 대학스포츠 선수 스카우팅

명효종 뉴스프리존 기자

#### 한 번도 안 싸우고 금메달 10개...대학 합격한 수상한 체육특기생

이홍갑 SBS NEWS 기자

### 고창군체육회

#### 감사결과 불법, 위법 '수두룩' 고창군체육회장, 경찰수사

김종효 뉴시스 기자

### 학교체육

#### 월드컵 열기 뜨거웠지만...학생 체육활동 전세계 '하위권'

윤나경 KBS NEWS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사건 처리기한도 못지키는 스포츠윤리센터]

내일신문  
박광철 장세풍 기자 2022.12.07

## 강제조사도 징계도 못하는 반쪽 조직 한계가 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예술복지재단은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 권리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 신고와 법률·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한다. 지난해 예술인신문고의 신고접수 및 상담건수는 윤리센터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업무담당자는 8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유 의원은 "예술인신문고는 상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년에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센터 내 인력부족 문제는 상담사뿐 아니라 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정원 45명 중 조사팀은 상담·조사(체육계 인권침해·비리) 17명, 법정의무교육(체육지도자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1명, 실태조사(선수·지도자 및 심판 등 실태조사) 1명, 법정시스템(징계정보시스템·통합신고관리시스템)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담당자 1명이 약 30만여명의 교육 이수 관리를 한다. 또 담당자 1명이 약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법정시스템 담당자 2명은 9762개 기관 정보 수집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사팀의 지난 8월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주중 202시간, 주말 147시간에 달했다. 주중 야근도 부족해 주말까지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초창기 정원 26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됐으나 모든 고충을 소화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말했다.

사후 관리도 그림의 떡이다. 지난 2년간 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534건 중 333건(62.4%)은 각하처리됐다. 각하 처리 이유는 본인 또는 신고인의 신고 취하가 주를 이룬다.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와의 합의·협이나, 협회나 소속팀의 압력이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윤리센터의 사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현재 조사 인력으로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개월 출석 요구에 불응도 = 윤리센터 설립은 2019년 스포츠계 미투와 조재범 사건,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스포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됐다. 이전에도 대한체육회 소속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었지만 내부 비위 조사·징계의 한계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갖춘 법인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20년 8월, 스포츠 분야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다.

국회와 정부는 윤리센터 설립에 맞춰 지도자의 (성)폭력 등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령을 정비했다. 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 제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끌기에 나서는 사례도 발생한다. 실제로 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A씨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7개월 동안 단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 장 계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조사권부터 제대로 인정해야 지금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에게만 관대 = 윤리센터가 이런 난관을 뚫고 조사를 마쳐도 징계라는 또 다른 산이 다시 앞을 가로막는다.

스포츠 비리에 대한 징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 윤리센터가 최초로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체부에 징계 요청·권고사항을 보고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이를 전달하면 산하 각 종목단체(협회·연맹)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이런 사정으로 윤리센터에서 권고한 징계와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및 연맹 등 종목단체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립 이후 지난 8월까지 윤리센터가 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비리 건수는 111건이다. 하지만 종목단체가 최종 징계를 내린 건 44%인 49건에 불과하다.

이들 49건 중 윤리센터의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게 전체 절반 가량인 24건(49%)에 달했다. 종목단체는 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30건 중 13건을 견책, 경고,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특히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지 1년이 넘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건수가 8건, 6개월 이상 징계를 미룬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진짜 어렵게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미흡하다"며 "그러다 보니 가해자들은 그대로 체육계에 남아 위세를 누리는데 신고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결국 체육계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센터 설립 취지가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폐쇄성, 파벌주의를 타파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강제 조사·징계권이 없다보니 사실상 범죄 피해 대응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여론에 밀려 설립했지만 처음부터 엘리트 체육계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반쪽짜리 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직률 20%, 전문성 축적에 빨간불 = 한편 체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윤리센터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센터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대비 75% 수준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조사의 경우 전수 직접조사가 원칙이라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와 휴일 근무가 많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총당금 적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사실과 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 6.6㎡(2평)도 안되는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겹쳐지면서 윤리센터 직원들의 퇴사율은 20%에 달한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윤리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양날의 검, 대학스포츠 선수 스카우팅

아마추어 스포츠 최고봉이자, 프로 진출 전 선수들이 거치는 마지막 무대인 대학스포츠. 2년 동안 연세대학교 스포츠 매거진 기자로 일하며 보고 배운 대학스포츠의 아쉬웠던 지점들과 발전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연 대학스포츠는 예전의 인기를 되찾고 반등할 수 있을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학 선수 선발. 2010년을 전후로 대학 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히 금품 수수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중에서는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도 포함되는 등 대학스포츠계 이외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리그의 경쟁력을 찾아가려 노력했던 대학스포츠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 약 10년이 지났고, 현재 대학 선수 선발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과거와 같이 사전 스카우트로 인해 선수들이 원서를 넣기도 전에 자신이 갈 학교를 100%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신 감독이 입시 과정 속 면접에 참여해 선수 선발에 어느 정도의 힘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감독과 코치의 영향 없이 입학사정관들에 의해 입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선수들의 대회 성적, 실기에서의 퍼포먼스가 그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된다. 이런 혼재된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선발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선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감독이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동시에, 스타트로 진가가 전부 나타나지 않는 선수라면 제대로 된 평가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선발 제도나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처럼 대학마다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때 입시 관련 문제들이 많이 터지자 많은 대학은 해당 종목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단지 면피용으로 그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별로 '팀 컬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스포츠와 달리 대학스포츠는 4년이란 선수들의 순환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빌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각각 확고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감독의 목소리 없이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서 팀 컬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리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선수들이 4년 동안 자신에게 맞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며 기량이 멈추게 된다는 비판도 함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감독이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감독들은 꾸준히 고등학교 선수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대학에 지원하도록 부탁하는 스카우팅의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점이다. 물론 감독이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에 금품 수수 등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정작 선발 이후에는 팀에게나 선수에게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상위권 선수들은 합격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감독이 여전히 선발에 관여하는 일부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호하며 대학리그 전력의 양극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국대학교 야구부가 실기 평가 때 동국대학교와 무관한 야구인을 포함하길 감독과 코치진에서 요청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좁은 스포츠계에서 지원자들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구인의 평가가 단순히 실기 평가에 의존할 수 있는지, 야구인과 감독, 코치진과의 관계가 아예 없다 할 수 있을지 등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남긴다. 오히려 비리를 막기 위한 감독과 코치를 배제한 선발의 방향성이 선수 선발을 음지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다음 장 계속





그럼 선수 입학 비리 문제가 많았음에도 현재에는 별 탈 없이 훨씬 더 많은 선수를 관리하는 NCAA는 어떨까. NCAA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협회의 허가를 받은 인원만이 고등학교 선수 리크루팅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장 외에서 어떤 방식과 장소에서 선수와 컨택할 수 있는지 또한 모두 규정으로 정해놓는다. 즉, 감독과 코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되, 모든 팀에게 동등한 과정을 주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또한 선수들이 상위 대학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학교마다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선수의 수에 제한을 뒀다. 한국에서 선발하는 선수들이 입시 전에 내정되었다는 문제를, 내정이 아닌 하나의 드래프트 장으로 만들어 풀어냈다.

물론 학교, 리그의 규모 등을 생각했을 때 이를 동일하게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혼재된 제도를 NCAA처럼 통합 관리해줄 만한 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KUSF가 체육특기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대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가 단체 차원에서 '학생선수 데이터 구축'과 '대입 제도 가이드라인 제시' 등 더 과감한 방향으로 입시 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NCAA에서는 선수들 성적뿐만 아니라 도핑 등 선수자격을 관리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대학스포츠도 최근 도핑, 학교 폭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고생한 만큼, 해당 사업은 대학스포츠 내외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로 각 종목 협회들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면 KUSF에서 추진하는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증명서 개선과 도 궤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혼재된 제도 속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느 범위 내에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스포츠 또한 NCAA처럼 독단적인 방향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중심을 잡아준다면 지금 이 과도기를 입시 제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문제가 많았던 과거 입시 제도들에 비해 개선의 의지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학들이 나아가고 있다. 다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변화들이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변화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 번도 안 싸우고 금메달 10개... 대학 합격한 수상한 체육특기생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을 시작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삼보 국가대표 A 선수는 최근 용인대학교 체육우수자 특별전형에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국내 대회 남자부에서만 모두 다섯 차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해 최연소로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했기에 합격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A 선수는 2명을 선발하는 무도스포츠학과 입시 결과, 기대했던 합격증 대신 '예비 번호 1번'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선수의 부모는 "2명의 합격자 모두 여자 선수다. 특히 합격자인 B 선수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금메달 10개를 땀다"고 제보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금메달 5개를 딴 A 선수가 단독 출전 덕분에 경기도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금메달 10개를 획득한 B 선수에게 밀린 것입니다. B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선수권대회 해당 체급에 출전해 스포츠와 컴뱃 삼보 모두 금메달을 독식했습니다. 혼자 출전해 실전 없이 자동으로 얻은 금메달이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메달 6개를 추가했는데, 한 대회에서는 고등부와 일반부까지 모두 출전해 스포츠와 컴뱃 종목에서 총 4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나홀로 출전' 덕분이었습니다.

고교 합계 금메달 4개와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따내 용인대에 합격한 또 다른 선수인 C 역시 금메달 4개 가운데 3개가 단독 출전 경기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은·동메달은 다른 출전 선수가 있었던 대회에서 따낸 실적입니다. A 선수의 부모는 "격투 종목인 삼보는 남자 선수의 경쟁이 훨씬 치열한데, 성별 고려 없이 수상 실적만으로 당락을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은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고, 이 메달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삼보연맹은 "해당 체급에 혼자 출전하는 게 선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에 해당 선수에게도 메달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학교에 제출하는 경기 실적 증명서 비고란에 전체 출전 선수가 몇 명이었는지 표기해 입시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삼보연맹은 "조만한 회의를 통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수상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인대 측은 학생부 20%와 수상 실적 80%를 반영해 해당 학과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사정관에 얽힌 논란을 차단하고자 수상 실적만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도입했는데, '나홀로 출전 금메달 합격자'라는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한삼보연맹이 발행한 경기 실적 증명서에 표기된 체급별 출전 선수 숫자는 합격자 발표 이후 뒤늦게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인대는 "A 선수가 우수한 선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미 합격자가 발표된 지금으로서는 (합격자 2명 가운데)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합격자가 나왔지만, 입시 규정은 2년 전에 미리 확정하는 게 원칙이라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대는 "(현행 제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사결과 불법, 위법 '수두룩' 고창군체육회장, 경찰수사

전북 고창군이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의 부적절 사례와 관련해 체육회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은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선 체육회장의 행위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은 민선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감사결과 고창군체육회 A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B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사무국장은 한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고 10월25일에는 급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 직권으로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규정(체육회 정관 18조,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63조 제2항)을 무시했다.

체육회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사무국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B사무국장의 존재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작위적인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군의 감사결과 A회장의 B사무국장에 대한 부적절 사례와 함께 전지훈련 보조금과 임원회비의 부적절 사용, 도민체전 참가 단복구입 과정의 '지방계약법' 위반, 도민체전 훈련비 미정산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 월드컵 열기 뜨거웠지만 학생 체육활동 전세계 '하위권'

## [앵커]

요즘처럼 월드컵이 찾아오면 운동네가 떠들썩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응원 열기가 뜨겁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탓에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 고등학생들.

고 1, 2 학생들은 1주일에 2시간, 고3은 주 1시간씩 체육 수업을 듣고 있지만,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2학년 : "공부도 해야 되고 학업이랑 병행을 해야 되니까 신체 활동을 할 기회가 적은 것 같긴 해요. (체육 시간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4년부터는 고2 체육 시간도 1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임성철/고등학교 체육교사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방과후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체육수업이 거의 다인... 80~90%가 체육수업 이외엔 (체육활동이) 없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안타깝죠."]

실제로 한 국제 학술단체에서 전 세계 57개국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제 체육활동 지수는 D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가 A 마이너스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미국 등은 B 마이너스로 상위권입니다.

반면 학교체육 정책 지수는 A로 핀란드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이유는 정책의 개수가 42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용관/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물음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학생들이) 알아서 신체 활동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중심의 신체 활동 증진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단, 학교 체육 시수를 늘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죄송 금지! 자랑스러운 선수들과 끝까지 함께... 새벽응원 풍경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375.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375.html)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주시 유망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12172552108607f28b58b8\\_12](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12172552108607f28b58b8_12)

함박눈 맞으며 마지막 광화문응원... "선수들 덕분에 행복"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3880\\_3574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3880_35744.html)

동아오츠카, 유소년 야구 선수에 2000만원 상당 후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2\\_0002120072&cID=13001&pI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2_0002120072&cID=13001&pID=13000)

골프존 '2023 골프존 후원선수 조인식', 세계적인 골퍼 육성 나선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85103?ref=naver>

부산시교육청, 10일 '교육감배 학생 빙상경기대회' 개최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1209/116926295/2>

"젖지만 열심히 땀 선수들에 만족" 광주서도 뜨거운 응원 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013200054?input=1195m>

KBO의 따뜻한 '드림스타트',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학생들 꿈 응원했다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2120813513387061>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 지연 심각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4209](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4209)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